

탈공산주의 후의 루마니아 저축 및 소비습관 변화

Elena Druică, Professor
University of Bucharest

■ 주요 내용

- 루마니아 국민의 저축률은 타 유럽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.
- 공산주의 당시 정부정책으로 인한 생필품 부족 현상은 루마니아 국민의 소비 및 저축 습관에 영향을 미침.
- 루마니아 경제는 소비와 저축, 양 방면에서 모두 탄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것

1

1980년대 루마니아의 소비 및 저축 습관

☐ 공산주의 체제 당시의 정부정책은 루마니아인들의 소비 및 저축 습관에 영향을 미침.

- 1989년 12월 루마니아의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, 지난 25년에 걸쳐 루마니아의 저축과 소비가 어떤 과정을 겪으며 변화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탈공산주의를 선언하기 직전의 몇 년간 루마니아 경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.
- 1980년대에 루마니아의 공산당은 국민의 생활 방식을 규제하는 강제성을 띤 과학적인 “가이드라인”을 발행함.
 - 가이드라인에는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도모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
 - 루마니아 보건부는 일반 시민의 하루 권장섭취량이 3,300칼로리 이상으로 과도하게 많으며, 운동도 충분히 하지 않다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제작함.
 - 특히 몸무게에 따라 상당히 구체적인 규율을 따를 것을 권고하였음.
 - 예를 들어 키가 157cm 이상인 30~39세의 여성은 몸무게가 56.6kg, 키가 168cm 이상인 40~49세의 여성은 66.9kg의 몸무게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임.
 - 또한 165cm 이상인 30~39세 남성의 경우 몸무게가 67.5kg, 키가 180cm 이상인 40~49세의 남성은 80.5kg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.
- 이러한 정부의 규정에 따라 루마니아인은 하루에 2,700~2,800 칼로리 정도를 섭취해야 했음.
 - 연간 육류 소비량은 60~70kg, 어류 소비량은 8~10kg, 우유 소비량은 210~230리터, 식물성 및 동물성 지방 소비량은 16~18kg, 야채 소비량은 170~180kg, 설탕 소비량은 22~26kg, 감자 소비량은 79~90kg, 곡물 소비량은 120~140kg 등으로 정해짐.
- 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늘날 미국, 캐나다, 유럽에서 제시하는 식사 권고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불합리한 것은 아님.
 - 다만 문제는 루마니아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을 띄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철저히 시행됐다는 점임.
 - 이는 육류, 식물성 기름, 설탕, 버터, 달걀 등 다양한 식료품의 배급량을 제한했다는 의미이기도 함.
- 이와 같은 정부의 제도 시행은 루마니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함이었고, 더불어 루마니아 내 식량난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됨.
 - 1980년대 후반 루마니아 정부가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장기적인 정책을 시행한 결과, 식량뿐만 아니라 의류, 화장지에 이르는 생필품까지 부족해지게 됨.
 -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당시, 정부 예산의 대부분이 중공업 분야로 투입되면서(그렇다 할

성공을 거두지도 못한 정책이었음) 실물 소비시장은 척박하고 부진하게 됨.

- 한편 루마니아 국민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참모습을 보게 됨.
 - 국가 경제가 지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아무런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고 성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됨.
 - 루마니아 국민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더욱 불안과 혼란을 느꼈고, 정부가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수시장도 안정화되지 못했음.
 - 오히려 많은 이들이 사재기를 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생필품 부족현상은 더 극심해짐.
 -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생필품 부족현상으로 인한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나타난 후 몇십 년간 소비에 대한 루마니아 국민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음.
 - 1980년대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하여 국민이 집단 트라우마를 겪었던 시점 이후로 루마니아 국민 대부분의 소비 및 저축습관이 변화하였다는 것임.

2

시장경제 전환 후 루마니아의 사회 변화

☒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루마니아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었고, 이는 결국 국민의 소비 및 저축 습관에 영향을 미침.

- 1990년에 루마니아가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되었고, 이에 루마니아 국민은 300년 만에 처음으로 식품, 최신식 전자기기, 자동차, 의류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소비재 홍수의 시기를 맞게 됨.
- 공산주의 정부가 붕괴하고 1년 후인 1991년, 루마니아의 가계 소비는 전체 GDP의 60%를 기록하며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
 -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가계 소비가 전체 GDP의 51%를 차지했고, 헝가리는 54%, 유럽 평균 가계 소비는 57%였던 걸 고려하면, 루마니아의 가계소비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.
 -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9년 이전에 극심한 생필품 부족을 겪었던 루마니아인들은 이후 약 10년간 물건 구매에 엄청난 돈을 소비하게 됨.
 - 당시 루마니아의 1인당 소득은 유럽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는 것을 고려하면, 루마니아인들은 수입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쇼핑에 지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.
- 1998년, 루마니아 가계의 소비재 소비는 GDP의 무려 77%에 달함.

- 이 시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높고 수입이 활발했던 시기임.
 - GDP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, 1999년 이후 지속해서 조금씩 감소하여 2015년에는 62%를 기록함.
 - 이는 25년 전의 비율과 거의 유사한 수치임. 동기간 유럽국가의 평균 가계 소비는 지속해서 GDP의 57%를 유지함.
- GDP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곧 달러로 환산된 1인당 소비지출이 낮다는 의미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음.
- 1991년 유럽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은 12,500달러(한화 약 1만2,500달러)였던 데 반해 루마니아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은 1,979달러(한화 약 219만7,481원) 수준이었음.
 - 이는 불가리아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 2,500달러보다도 낮은 수치임.
 - 전년 대비 10%가량 감소한 2009년을 제외하고 루마니아의 소비지출은 1991년도부터 매년 지속해서 증가했음.
 - 2015년, 루마니아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은 3배 이상 증가한 6,083달러(한화 약 675만4,563원)를 기록하며 불가리아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 4,741달러(한화 약 526만4,406원)를 넘어섬.
 - 1991년 루마니아의 1인당 소비지출은 유럽 평균 1인당 소비지출의 16%를 차지했지만 2015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하여 35%를 차지함.
 - 여전히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이나 그 격차가 차츰 좁혀지고 있음.
- 역설적인 점은 1991년 루마니아 국민의 저축률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비교적 높았다는 것임.
- 당시 루마니아 저축률은 GDP의 24.5%로, 불가리아나 폴란드의 18%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, 유럽 평균인 22%보다는 약간 높았음.
 - 경제적 불안정에 따라 상품뿐만 아니라 돈까지 사재기(저축)하려는 데서 기인한 루마니아 국민의 생존 성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됨.
- 루마니아의 예상외로 높은 저축률은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 구매할 만한 가치 있는 상품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기도 함.
- 1980년대 초, 식료품점에서 파는 품목군은 점점 적어졌고, 1980년대 후반에는 의류, 전자기기, 사무용품에 이르기까지 소비재를 판매하는 모든 상점의 상품 진열대 역시 텅 비었음.
 - 이러한 상황에서 루마니아 국민은 평가 절하된 화폐를 지갑에 가득 넣고 구매할 만한 상품을 찾기 위해 대도시의 시내까지 나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음.
 - 결국 당시 경제 상황에서 국민은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반강제로 저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임.

- 1998년경 유럽의 평균 저축률이 22~23%로 지속해서 유지되었던 것에 비해 루마니아 저축률은 GDP의 10%까지 하락하였음.
 - 저축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루마니아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다수의 은행이 국민의 저축성향을 억제하려 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임.
 - 1999~2007년 사이 물가상승률이 마침내 억제되면서 저축률이 조금 회복되어 12~15% 사이를 웃돌음.
 - 하지만 저축률이 이전과 같은 수치로 회복되어 GDP의 24%를 차지한 것은 2008/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임.
- 개인의 송금 또한 루마니아 저축과 소비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침.
 - 1990년 이후 많은 루마니아인이 해외 이주를 시작하면서 해외에서 번 돈을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달러로 보내기 시작함
 - 해외에 체류 중인 루마니아인을 정확히 수치로 파악하긴 어렵지만, 약 2백~4백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함.
 - 1990년대 해외 송금은 극미한 액수였으나, 송금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해 2015년 GDP의 약 1.64% 수준, 약 30억 달러(한화 약 3조3,300억 원) 규모에 달함.
 - 해외 송금액은 저축과 소비를 모두 늘리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.

3 **전망과 시사점**

루마니아 경제는 소비와 저축 모두 탄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편임

- 루마니아는 계획 경제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현재도 여전히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빈곤한 국가에 속함.
 - 루마니아 경제의 특성은 GDP에서 소비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임.
- 하지만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는 다른 유럽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비 및 저축 패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, 특히 과거 공산주의였던 동유럽의 양상과 비슷함.
- 흥미로운 점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루마니아의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는 것임.
 - 물론 금융위기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루마니아 국민이 영향을 받고

있지만,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비와 저축 모두 엄청난 탄력성과 평정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. **EMERiCs**

출처

The World Bank Data, The Romania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, The National Bank of Romania, 루마니아 현지 신문 등